

진안역사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

‘석하 전형무, 진안을 기억한 기록가’ 10월 13일까지 진행... 시집·사진·발간자료 등 전시

진안군은 진안역사박물관에서 특별기획전 ‘석하 전형무, 진안을 기억한 기록가’ 전시를 27일~10월 13일까지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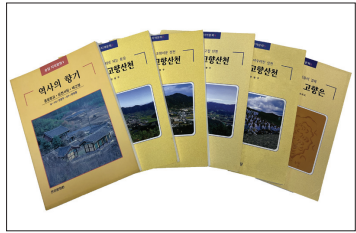
이번 특별전은 용담댐 건설과정에서 사라진 지역의 모습을 기록한 故 전형무 선생을 재조명하고, 그의 예술작품과 향토사 연구자료 등을 종합하는 전시다.

진안군 출신인 전형무는 용담댐 건설로 인해 수몰될 예정인 마을들과 주민들을 촬영하고, 기록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전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고향 진안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교직 생활을 이어가며 진안의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통해 지역의 명맥을 잇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또한 등단 시인이면서 다수의 사진전에 입상하는 등 예술가적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많은 재능으로 다방면에서 뛰어난 활동을 이어가던 전형무는 수몰마을을 기록하기 위한 사진 촬영에 매진하던 중 병을 얻어 진안 초립초등학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전형무 '그리운 고향산천' (1997 진안문화원)

1997년 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전형무가 수몰지역을 촬영하여 기록한 사진들을 비롯하여 이를 종합·편집하여 발간한 ‘그리운 고향산천’이 전시된다.

또한 교직생활동안 수집한 진안지역 초등학교 졸업사진들, 직접 지은 동시들 책으로 엮은 미발간 동요시집 ‘두메에 사는 아이’, 그가 주도하여 발간한 지역사 발간자료 등도 전시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지역적으



용담댐 수몰 전 전형무가 촬영한 수천리 원장마을

로는 수몰 지역을 기억한 기록가이자 지역사를 연구한 향토사학자로서 전형무의 업적과 성과를 기리고, 개인으로서는 시와 사진에 매진한 예술가로서 전형무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지역사회와 어린이들을 위해 헌신한 고인의 노력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전시와 관련된 사항은 진안역사박물관(063-430-8085)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새일센터-강원새일센터 동반성장 컨설팅

창업지원사업·직업교육훈련·사후관리사업 등 핵심 사업 운영 노하우 공유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전정희 원장)는 27일 강원지역 6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함께 운영사업 분야별 업무 컨설팅 및 벤치마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반성장 컨설팅 및 벤치마킹은 타지역 새일센터와 사업운영 우수사례 노하우를 공유해 새일센터 종사자들의 역량 제고를 위해 기획됐다.

전북새일센터는 새일센터 평가에서 3년 연속 상위 등급을 받는 등 우수 새일센터로서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창업지원사업,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지역 내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국민취업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3년 새일센터 운영평가 A등급 지정센터로,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구인, 구직, 상담, 사후관리, 홍보, 네트워크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히 전북새일센터와 강원지역 6개 새일센터는 상호업무교류협약(MOU)을 체결, 향후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의 공동수행을 약속했다.

한편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발굴 및 창업지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새일센터 역량제고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직업교육훈련 등을 운영하며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창업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정희 원장은, “이번 광역단위 컨설팅은 새일센터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과 궁금증을 해소하고,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전북지역 내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센터간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수경 강원새일터장은 “전북새일센터의 우수한 실적 및 다양한 사후관리사업에 놀랐다”며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성공사례를 강원지역에도 접목시켜 기관 이미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제30회 전국한지공예대전 시상식이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열렸다.

제30회 전국한지공예대전 시상식

지정민씨, 대상 수상... 104점 수상 영예 안아

‘제30회 전국한지공예대전’ 시상식이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공연장에서 열렸다.

27일 전당에 따르면 이날 시상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 김도영 원장, 전국한지공예대전 이우라 운영위원장 등을 비롯한 문화계 인사가 다수 참석해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대상 수상자인 지정민 씨에게 대한민국 국회의장상이, 최우수상 전학식 씨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 조은희 씨에게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각각 수여됐다.

이번 행사에는 전통, 현대, 문화상품 등 3개 부문에 걸쳐 모두 155점의 작품이 접수, 이 중 104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들은 상장 외에 대상은 1000만원, 최우수상 500만원, 우수상 200만원 등의 상금도 전달했다.

대상을 수상한 지정민 씨는 “한지의 독특한 질감과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 한지를 겹겹이 쌓거나 찢고 접는 등의 방법으로 작품을 완성

했다”며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한지로 세밀하게 표현한 이번 작품이 대중들에게 한지를 현대적으로 보여주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최우수상을 수상한 전학식 씨는 “늦은 나이에 시작한 한지공예는 삶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값진 시간이었다”며 “이렇게 상까지 수상하게 돼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김도영 원장은 “이번 대전은 특히 전통에 기반한 창작력 감성과 아이디어를 접목시킨 젊은 작가들의 작품이 많이 응모됐다”며 “많은 창작물을 기반으로 한지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개발돼 세계로 진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제30회 전국한지공예대전 수상작은 6월 9일까지 전당 3층 기획전시실에 전시된다. 관련 사항은 국제한지산업대전TF팀(063-281-157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 ‘전북지식살롱 시즌2’ 2회차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전북지식살롱 시즌2’ 2회차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29일 오후 5시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1층에서 ‘지역의 매력을 만드는 지역 매니지먼트’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 도시 재생 및 로컬 브랜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시즌2의 두 번째 강연은 도시 재생의 선례를 만든 도시기획자 조권은 대표(주)지방)를 초청했다.

이번 강연에서 조권은 대표는 군산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험을 공유한다.

특히 군산의 오랜 재래시장이었던 영화시장을 개성있고 실력있는 젊은 상인과 예술가가 모이는 ‘영화타운’으로 재탄생시킨 사례를 중

심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갈 예정이다. 조권은 대표가 운영하는 (주)지방은 지역관리(area management) 개념을 도입한 지역 운영회사로, 지역 콘텐츠 개발, 부동산 매니지먼트 등을 운영하고 이를 크리에이터들과 연결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한편 지식살롱은 재단과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전북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소위 ‘전편’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로컬 대표 커뮤니티를 목표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장은성 기자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

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센터장 유은경)는 올해 세 차례에 걸쳐 2024년 전북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28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문화영 연구원의 ‘여성친화도시 이해 및 우수사례 공유’를 주제로 1차 교육이 진행된다.

이어 6월 5일에는 강원성별영향평가센터 박해숙 센터장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컨설팅 실무’,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최혜영 연구원의 ‘노동분야 젠더 이해 및 성별영향평가 적용 사례’를 주제로 각각 2~3차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 구석구석 문화배달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오는 10월까지 구석구석 문화배달 ‘예술, 골골숯’을 총 66회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술, 골골숯’은 도내 지역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곳곳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증대를 목표로 추진됐다.

27일 전당에 따르면 도내 문화환경취약지역 10개 시·군(정읍, 김제, 남원, 무주, 진안, 장수, 고창, 순창, 임실, 부안)에서 매일 문화가 있는 날(해당 주간 포함)에 진행된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 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지역 어디서나 문화예술을 향유하길 바란다”

며 “지역 내 협업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석구석 문화배달’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2월 공모에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북자치도, 10개 시·군이 주최하며, 지역문화진흥원과 재단, 그리고 도내 지역별 기초 수행기관이 함께 주관해 사업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문화팀(063-230-7461)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